

균형발전지표·낙후지수 위주로...선정 기준부터 바꿔야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혁해야

<3>국가균형발전의 버팀목으로

국가 재정이 인구, 경제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제도(예타)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예타에서의 지역낙후도 중시, 예타 면제 사업 선정,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뉴딜 추가 등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타, 정부부처 공모 등에 있어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지역혁신역량의 구간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을 보다 낙후한 지역에 전략 배치하는 등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한 국비 매칭 비율 조정, 재정

연구개발기관 낙후지역 배치

재정 감안 국비 매칭 비율 조정 필요

최근 5년 SOC 예타사업 중

비수도권 78% 탈락, 수도권 82% 통과

정치권 제도 전면 개편 움직임 주목

본권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점차 고착·심화되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영남·충청·호남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예타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연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예타 제도를 대체할 근본적인 대안 모색을 주장한데 이어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9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만큼은 '예타 대상금액의 증액'이나 '점수 배점 조정'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안의 핵심은 예타의 수행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한 것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인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센터(PIMAC)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총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비수도권 사업이 21개(77.8%)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은 2015~2020년 총 34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28개가 타당성을 확보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다.

예타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사업성 없는 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곳에만 재정이 투입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태영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페인 북부도시 발바오가 1980년대 철강 조선업에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한 과정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였다면 낡은 폐공장과 오염된 강이 흐르는 가장 변방의, 인구 30만 조금 넘는 도시에 2000억원이 넘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까 묻고 싶다"며 예타 문제를 지적했다.

연 최고위원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모든 지방정부들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향해 예타 면제 또는 간소화를 읍소한다. 예타 평균 조사 기간은 2009년 평균 7.8개월이던 것이 2018년 10년 사이에 평균 19개월로 2.4배나 증가했다"라며 "예타의 장기화로 사업 표류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어렵게 하고, 재정의 적기 투자 시기를 놓쳐서 경기대

응력을 상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예타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총리는 '교통 인프라 등 SOC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다'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예타 혁신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 간 격차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 재정, 권한 등의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어진 운동장'의 기술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국비 매칭 비율 역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지자체마다 차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윤형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일자리·AI, 전남 2차 전지·그린 수소 산업 예산 반영·증액

국회 예결위 서동용 의원

"미래 먹거리 기반 예산 집중"

광주형일자리·AI, 전남 이차전지·그린 수소 등 2021년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국비 예산이 반영 및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일 "국회를 통과하는 2021년도 예산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요청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생형 일자리 기반 구축 및 정착 지원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또 광주지역 신산업으로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기반 구축,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개발 사업,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 임신 성공률 향상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사업 등 AI 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R&D 사업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 및 인제 양성사업, 광주 생활음악당 건립, 5·18 스트리트 뮤지엄 구축,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DB 구축사업 예산 등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전남지역 주요 국비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스택 개발 및 전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그린 수소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법 전부 개정안 회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장인 박만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전남 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꼽히는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구축,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도 예산이 반영됐다.

국가항만인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 확보를 위해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세풍 산단 부지 매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여수항

재개발 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등이 다수 증액됐다.

서동용 의원은 "과거 국비 예산 확보에 핵심이던 SOC 사업 위주의 건설사업에 국비 확보가 집중되었던 반면, 2021년엔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달빛 아무리 밝아도 외롭고 쓸쓸하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6)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 하고/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백석 작 '흰 바람벽이 있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잠시 멈춘 탓인지 올 한해 하늘은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깨끗하고 공활하다. 이즈음 밤하늘에 덩두렛이 걸려 있는 보름달 역시 휘영청 밝다.

계절이 깊어지면 서스산해진 초겨울 분위기가 탓인지, 사회전반에 스며든 것 같은 '코로나 블루' 탓인지 그 달 아래 서면 달빛 아무리 밝아도 외롭고 쓸쓸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백석의 심정처럼 말이다.

김홍도(1745-1806)의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1796년 작)는 폭 이맘때의 달 밝은 밤 풍경을 묘사한 그림처럼 다가와 마음이 간다. 옛 그림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을 만큼 친숙하고 현대적이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산에 나무가 덩성덩성 들어서 있는 숲 뒤편으로



김홍도 작 '소림명월도'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다.

오른 편에 선 작가는 나무 아래로 조용하게 서서 냇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의 키 작은 나무들은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있다. 풍경에 감정이입했던 화가의 정취, 단원의 고적감을 담았던 것일까. 인물 하나 등장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소슬한 기운이 가슴 깊이 파고든다.

우리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우리 옛 그림을 연구해오면서 '단원 김홍도' 연구를 한 권의 역작으로 펴내기도 했던 미술사학자 오주석(1956-2005)은 "무엇을 그려도 조선적인, 가장 조선적인 우리 맛이 우리나라에 그렸던 김홍도는 이 노년작에서 생애 말년에 신산스런 세상의 추이에서 맞보았던 쓸쓸함, 그리고 허심포 모파한 미술혼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붉은 석류



노란 유자



초록 참다래

불·노·초의 고장 고흥!